

우리들의 모습



초등부 성소자 캠프



8월 5일(화) - 6일(수) 우곡성지에서 초등부 성소자 캠프가 있었습니다. 13명의 초등부 성소자들이 모여 신학생들과 즐거운 물놀이를 했고, 저녁에는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영화를 함께 보며 성경 속 내용을 되뇌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구를 살리기 위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약속의 의미를 담아 다육이의 이름을 지어주고 화분을 꾸미는 활동도 진행했습니다.

기억해요!

1. 예비신학생 9월 모임

- 일 자 : 9월 21일(주일)
- 장 소 : 미정

영명축일 축하합니다!

- 9월 29일 가브리엘
대 신 학 생 - 김병욱 (용상동, 학부3)
- 9월 29일 라파엘
예비신학생 - 신경훈 (용상동, 고3)

예비신학생 기본교리

고해성사는 왜?

예신생 여러분, 2학기가 시작되었네요.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친구들과 다투고 부모님께 잘못하고 나쁜 생각이나 말과 행동을 해서 마음이 무겁고 불편하고 부끄러울 때가 있지요.

그런데 하느님은 우리가 그렇게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화를 내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다정하게 안아주시는 분이시요. 바로 고해성사를 통해 마음 속 불편함을 없애주는 것예요. 잘못과 죄를 반성하면서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하느님께서 용서해주신다는 사실을 신부님께서 확인해주시죠.

하지만 고해성사는 늘 부담스러워요. 자신의 잘못을 다 얘기해야 하고, 또 신부님에게 말하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요.

기억하세요. 신부님은 고해성사 때 들었던 내용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이것은 교회법으로 매우 엄격하게 정해져 있으며, 이것을 '고해 비밀'이라고 해요. 고해성사 때 하는 이야기는 모두 주님께 드리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주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한 일이 부끄럽기는 하지만, 숨기면서 불편하게 지내는 것보다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받는 것이 훨씬 마음이 편할 거예요.

고해성사 끝에 신부님은 "평안히 가십시오"라고 하지요. 이 말은 '그동안 불편했던 마음을 여기에 두고,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세요'라는 뜻을 하느님을 대신해서 신부님이 전해주는 것이예요.

자신을 자주 돌아보고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늘 새롭고 깨끗한 마음으로 지내도록 해요~



2025년 9월

예비신학생 편지



〈2025년 초등부 성소자 캠프〉



천주교안동교구 사목국 성소담당

https://www.instagram.com/andongcatholic_
안동교구 예비신학생 인스타그램

- '상재상서'(上宰相書) -

9월은 '순교자 성월' 이지요. 우리나라에 위대한 신앙 선조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정하상 바오로'라는 분이 계시지요. 들어보셨지요?

그분은 한글로 된 교리서인 '상재상서'(上宰相書)를 지었습니다. 이 책은 박해자들에게 천주교가 무엇 인지를 알려주는 책이었습니다. 그가 지은 상재상서의 일부를 읽어볼까요?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고, 당신의 착하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입니다. 하늘을 만드시어 우리를 덮어 주시고, 땅을 만드시어 그 위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어 우리를 비추시고, 나무와 동물과 금,은,동,철을 우리가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티끌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느님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를 내시고 기르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십니다. 굳이 죽은 후에 받을 상이 아니더라도, 당장 지금 받고 있는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그분을 받들어 섬깁니다. 하느님을 섬기는 일이 어려운 것도 아니려니와, 은밀한 말을 하거나 괴상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스스로의 잘못을 고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려는 것뿐입니다.”

정하상 바오로는 1839년 9월 22일, 서울에서 45세 때 순교하였습니다. 청년 때부터 순교할 때까지 20년 이상 우리나라 천주교회를 위해 노력한 정하상 바오로를 천주교인들은 늘 존경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훌륭한 신앙 선조가 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찬미 예수님!! 학부 3학년 김병욱 가브리엘 신학생입니다.

예비 신학생 친구들, 유난히도 뜨거웠던 여름 건강히 잘 보냈나요? 저는 순교자 성월인 9월을 앞두고 우리 친구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순교자 성월을 보내면서, 예신생 친구들에게 생활 성가를 하나 소개해 주고 싶어요. '햇빛 속의 산책'이라는 곡인데, 저는 이 성가를 들을 때면, 순교자 성월과도 깊은 연결을 느끼곤 합니다.

이 성가의 클라이맥스의 가사는 이렇게 노래해요.

“하느님, 제게 알려 주소서. 이 길에 끝이 어딘지..
하느님, 제게 허락 주소서. 당신을 따라가리다.
나의 주, 나의 하느님. 당신의 빛으로, 나의 길,
나의 소명을 비춰 주소서.
나의 영혼이 당신을 향해 내딛는 한 발걸음....”

이 성가를 들으면서, 만일 내가 순교자였다면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죽음의 위협과 고난들이 있겠지만, 두려움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의 도움을 청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길 바라는 마음을 지녔던 순교 성인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주님의 빛'을 따라 내딛는 발걸음은 분명 기쁘고 자유로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예신생 친구들,
여러분의 생활 안에서 하느님의 빛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9월 순교자 성월을 보내면서, 순교자들의 마음처럼 하느님의 햇살 속에서 자유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 어려움들이 생길 때, 하느님께 청하는 기도 안에서 용기를 얻고, 주님과 함께 발걸음을 내딛길 수 있기를 저도 함께 기도 할게요~ 안녕!!

용상동 본당, 학부3
김병욱 가브리엘 신학생



저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위로를 주시길 바랍니다. Mando